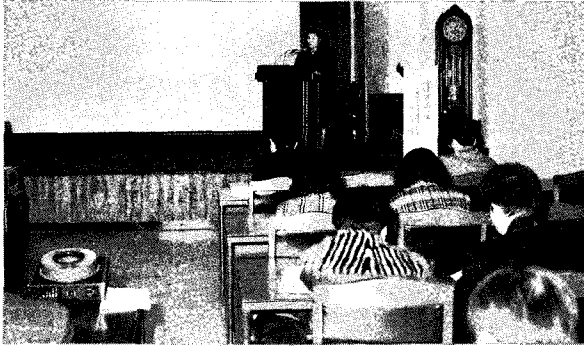


에이즈 관리 수범사례



김현숙/경기도 광명시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최근 전세계적으로 AIDS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듯이 최근에 AIDS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일 5,0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실제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대책의 시급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AIDS 감염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혈로 인하여 AIDS에 감염된 주부이고, 또 다른 한분은 내국인과의 성접촉에서 감염된 젊은 남자입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이 두 감염자를 관리해 오면서 겪었던 담당자로서의 어려움과 이들이 담당자를 통해 호소했던 내용

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포혈액원에서 매혈한 피를 대한적십자에서 구입하여 모병원으로 공급하였는데 동일인이 AIDS 항체 양성자로 판명됨에 따라 이 피를 추적조사한 결과 모종합병원에서 자궁종양 수술중 이 피를 수혈 받았다고 하여 이 여인의 피를 검사한 결과 AIDS 항체 양성자로 판정되어 통보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단란한 가정의 삶을 누리던중 AIDS 항체 양성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된 이분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

자신도 살다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몰두함으로써 잠시나마 AIDS 감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사람씩 그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모방 송국에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위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들 주민들이 단합하여 보건소로 항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의 내용을 간략하면 실제로 그사람이 살고 있느냐, 살고 있다면 왜 당국에서는 일반주민들과 같이 살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만일 모기가 감염자와 일반주민 사이를 오가며 흡혈한다면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등 주위 주민들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AIDS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자 보건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안심시켰으며 AIDS 감염자가 우리 이웃임을 강조하여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곤 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더 큰 시련은 가정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이해심 많고 자상했던 남편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예사여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날에는 저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의 집으로 급히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영양제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녀넉

히 달라고 남편에게 요청했더니 남편은 생활비를 더 주기는 커녕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너무도 억울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의 말 외에 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이 감염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아주 일부에 속하는 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감염자의 관리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DS 감염자의 경우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확실한 기약도 없이 채혈만 반복되는 검진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담당자가 가장 어렵게 느낀 일중의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이분도 이 검진에 대해서 불평도 많이 했고 거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기검진만이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집요하게 설득하였고 이는 또한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검진에 응하는 일임을 알기에 싫다고 하면서도 응했습니다. 이는 담당자와 감염자 사이가 격이 없고 친숙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2월부터는 AZT 투약 대상자로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투약하게 된 것은 감염자 관리에 있어 무척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그녀에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껴 전보다 더 우호적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진도 스스로 받았고 병원에

서 주는 AZT도 열심히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활력도 찾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올적마다 보건소로 연락을 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였으며 담당자의 말한마디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현재 이분은 AZT를 투약하며 정기검진도 스스로 받으며 생활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딴살림을 시작하여 가정은 파탄지경에 있고 최초로 보상비로 3천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온데간데없어 여러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 다른 파문이 없었으면 하는게 최대의 바람이라고 말할때는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관악구에서 전출해온 남자 강영자씨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어느날 관내 전입 사실을 통보 받고 추적을 시작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그의 형님집에 주민등록상에만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환자를 만나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전화로 가족을 상대로 설득했지만 환자는 물론 가족들 조차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인은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가족들은 만나기를 기피했습니다. 계속되는 가족들의 비협조속에 담당자로서 책임을 갖고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설득의 효과속에 거의 1년이 되어 본인이 보건소로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과의 성접촉으로 인하여 AIDS에 감염되게 되었고 그당시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을 해야 했으며 자신의 처지가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두려워서 피했던 것이다. 처음에 감염 사실을 통보받고 자살을 하려고 몇번 시도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으며 다니던 회사에서는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전화가 옴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스스로 사직을 하고 기도원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누나의 격려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금은 자신이 AIDS 감염자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만큼 안정을 찾았으며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정기검진 시기가 되어 검진을 받게끔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다시 잠적해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담당자로서는 너무 암담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추적이 시작되고 연락처인 형님댁에는 밤 9시 넘어야 전화통화가 가능했으며 연결이 되더라도 모른다고 전화통화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끝에 누나집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간접적이거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를 통해 동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으로 동생과 같이 단 한번만이라도 병원에 같이 가라고 설득을 한 결과 승락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려고 하니 진료비가 너무 부담되어 그냥 돌아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나중에 국가에서 진료

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고 계속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면 병원비 문제는 해결되리라 여기고 가족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성의는 고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게 무엇보다도 싫으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의료보호 책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계속적인 노력이 환자 및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은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검사 및 투약을 받고 있으며 가끔 보건소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분은 사회에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이 스스로 연락을 할 때까지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며 꼭 연락을 취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몇번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방송에서 AIDS가 보도 될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적마다 고통을 느끼며 옛일이 기억되어 죽음이 상기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상 두 감염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면서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써 느낀점 및 건의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대중매체가 환자의 고통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관리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는 없지만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감염자들을 설득하여 관리할 수 있고 환자들 자신도 좀더 편한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지낼 수 있지 않나 여겨 봅니다.

둘째 : AZT 투약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자 자신이 진료비를 선지불한 후 개인구좌를 통해 입금되고 있는데 이를 병원측과 보사부가 합의하여 무료로 직접 투약된다면 환자들은 보다 편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고 검진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셋째 : 일선 담당자의 애로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큰 도움은 못주더라도 감염자의 집을 방문할때라든가 밖에서 만날때 좀 작은 성의나마 표현하여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때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네째 :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감염자라는 판정을 받을 당시에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일정액을 보상비로 지급 받았지만 이는 지속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일정액을 연금으로 책정하여 월지급 한다면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저의 관내 두 환자를 중심으로 담당자로서 보고 느낀점 및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AIDS는 예방이 최고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또는 잘못으로 인한 감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더 심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